

나이백,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없음

유상증자 전 보고서 반영 분으로 실제 지분 변동은 없음.

[2019-06-26] 나이백은 최대주주 정종평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1.80%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나이백 관계자는 “직전보고서의 보유비율인 30.17%는 유증 발행 전 주식 총수인 640만주에 신주 인수권이 반영된 지분율로서 실질적으로는 21.97%에서 21.80%로 기존 대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다”고 말했다.

이어, 총 350만주 중 특별 우선 배정된 우리사주조합원의 17만 5천주(신주의 5% 해당)를 제외한 332만 5천주가 구주주로 배정됐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.

나이백은 지난 4월 연구개발비 확보 및 기술이전 가속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대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, 실권주 없이 100% 마무리되며 103.65% 청약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.

나이백은 오는 28일 신주 교부가 이뤄질 예정이며, 7월 1일 상장 및 매매 개시될 예정이다.